

인도 전자상거래 물류 인프라의 주요 시사점: Flipkart와 Adani의 전략적 협업

“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보급률 증가,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,
인구통계 호조, 결제 수용도 급증 등으로 호황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Flipkart and Adani Group's ... Infrastructure, Apr 13, 2021

- 인도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소비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**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기를 얻고 있음**
 -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, 스마트폰 사용 증가, 인구 증가 및 온라인 결제 사용 가능성의 급증과 같은 이유로 인도의 전자상거래 물류 시장이 크게 발전함
 - 인프라 개발과 GST 시행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확대에 기여
- 전자상거래 업체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배송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체 창고(Fulfillment Center)를 찾고 있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
 -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와 라스트마일 배송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업 방식을 선택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
 - 뭄바이를 인도의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설정한 Flipkart와 Adani의 전략적 협업은 두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됨

- Flipkart에서 임대할 풀필먼트 센터는 인도 서부 지역과 수출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처리하는 **핵심 유통 센터 역할**을 하게 될 것
- 두 대기업의 **협업이 가져올 반향 효과**는 다음과 같음:
 - **현지화를 통한 협업 확대:** 현지 제작, 현지 시장과 현지 공급망이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형 인도라는 개념에 부합됨
 - MSME와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면 제조 부문과 공급망 부문도 발전
 - **데이터 보호:**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려면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해야 함
 - 이러한 변화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
 - **최종 사용자:** 배송 지연 문제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것이므로, 전자상거래 매출은 더욱 확대될 것
 - **디지털화의 가속화 현상:** 전자상거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효율적인 공급망은 물론이고, 자동 적재 출고시스템(ASRS), 경로 축약(route aggregator), 공급자 관리 등,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**(결론)** Flipkart는 이처럼 Adan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**국내 공급망 인프라를 강화**할 것이며, 다른 다국적 기업, 파트너십, 협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
 - 새로 건축될 풀필먼트 센터는 **2022년 제3사분기에 사용**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센터에서 어느 정도 물류를 처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음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